

슬라브 신화에 나타난 테오님(theonyms) 연구 - 블라디미르 대공의 판테온을 중심으로

김형섭*
중앙대학교

Abstract

A Study on Theonyms in Slavic Mythology - Vladimir the Great's Slavic Pantheon

Kim, Hyongsup

This research examines the etymolog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theonyms of the major gods of Vladimir's Slavic pantheon in Kiev Rus'. Being one of Indo-Europeans, Slavs share a variety of cultural cognates or similarities, in many aspects, with those who used to live, now live on the Pontic-Caspian Steppe, such as Indo-Aryans, Scythians, Ossetians, Alans, and so on. Theonyms exhibit the origin of their own names, analyzing every word, that is, an etymon that consists of the parts of name of a certain god. Understanding the linguistic structure and meaning of theonyms helps acquire the exact information of the given gods from a perspective of history, mythology, culturology, and linguistics, and so forth.

Slavic pantheon that Vladimir the Great set up in Kiev consists of the idols-statues of Perun, Khors, Dazhbog, Stribog, Semargl, and Mokosh, and Veles, whose idols was found near low places separately from Vladimir's other gods. There must be some gods of Slavic origin and at the same time, the other gods of Indo-Iranian origin.

*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유럽문화학부 부교수/ E-mail: kimhs10@cau.ac.kr
- DOI: <http://dx.doi.org/10.15755/jfs.2023.65.343>

There are certain cultural cognates or similarities between Slavic paganism and Indo-Iranian religious practices. For example, both belief systems shared a reverence for nature and natural phenomena, as well as the worship of deities associated with the sun, fire, fertility, and war.

Additionally, some scholars have suggested possible connections between specific deities in Slavic paganism and those in Indo-Iranian religions. For instance, the Slavic god Perun, associated with thunder and lightning, has been compared to the Vedic god *Indra* and the Iranian god *Verethragna*, who also possess similar attributes.

It's important to note that the exact nature and extent of these cultural connections remain a subject of scholarly debate. The similarities between Slavic paganism and Indo-Iranian religions may be due to common Indo-European roots shared by both cultures rather than direct influence or contact between them.

Keywords: Slavic mythology, Slavic gods, Indo-Iranians, Theonyms, Paganism

주제어: 슬라브 신화, 슬라브 신, 인도-이란어족, 테오넘, 이교주의

I. 서론

일반적으로 이름이나 명칭, 호칭은 상호관계와 문화적 배경 지식을 알 수 있는 언어적 도구임에 틀림없다. ‘Slavs’라는 이름은 슬라브어 слово ‘단어’에 그 어원을 두고 있으며, 자신들이 ‘단어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those who speak with words)’이란 뜻의 ‘슬라브(Slavs)’라 불렀다. 이런 이유로, 슬라브족은 인접하고 있는 서쪽의 이웃, 즉 게르만족을 немцы ‘멍어리의,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라 불렀고, 오늘날까지 다양한 슬라브어에서 사용되고 있다.¹⁾ 또한 슬라브족은 핀란드인을 Chud ‘낯선사람 stranger’²⁾, 켈트인과 로마인들을 Vlachs³⁾라 불렀다. 폴란드어에서는 이탈리아를 Włochy, 게르만족들은 슬라브인들을 Wends라 불렀는데, 이는 발트해 근처에 거주하던 슬라브족의 일파인 Veneti에서 기원한다. Wends로 알려진 Veneti족은 16세기까지 오늘날의 라트비아 지역에 거주하였고, 지금도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러시아인을 ‘Venäjä’, ‘Venemaa’라 각각 부르고 있다.(Kalik J. & A. Uchitel, 2018, pp. 9-12)

이렇듯 이름이나 호칭은 상호 간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서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거나 특징적인 문화적 배경을 제시한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이름 역시 그들의 존재와 능력, 숭배하는 민족이나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어 연구의 가치가 높다 할 수 있다.

테오님(theonyms)은 ‘신의 이름, 신명(神名)’을 뜻하는 단어로 고대 그리스어의 어원 *theos-* (Θεός) ‘god’에서 파생된 어근 *theo-*와 ‘이름’을 의미하는 *-onoma* (ὄνομα) ‘name’에서 비롯된 어근 *-onym*이 합쳐져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그리스-로마신화에서 로마의 최고 신인 *Jupiter*는 ‘하늘의 신’, ‘번개의 신’, ‘신들의 아버지’란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원(源)-인도-유럽어(Proto-Indo-European, 이후 PIE)의 어근 **dyeu-* ‘to shine, 빛나다’에서 호격(vocative) 형태인 **deiw-os* ‘god, 신이시여!’의 형태를 거쳐, ‘아버지, 가장’을 뜻하는 PIE **pater-* “father”와 결합된 형태인 **dyeu-peter* “god-fater”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⁴⁾ 그리스인들은 로마인들이 섬기는 *Jupiter*를 *Zeus*라 달리 부른다.(Watkins 2000) *Zeus*는 PIE **dewos-* “god”에서 비롯된 단어로 ‘고대 그리스의 최고 신’, 다른 사람들의 주인(master of the others)’이란 뜻으로 원래는 ‘빛나다’, 즉 ‘하늘’, ‘천국’, ‘태양’, ‘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Jupiter*와 *Zeus*는 하늘의 신이며 신 가운데 으뜸 신으로, 천둥과 번개를 다스리는 신으로 로마인과 그리스인들에게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테오님을 통해 알 수 있다.

슬라브인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만물의 창조주로 여겨지는 로드(род), 페룬(Перун), 벨레스(Велес), 모코시(Мокошь), 호르스(Хорс) 등의 신들은 민중들의 전통과 실생활 속에 각기 다른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 로드는 단어 그대로 ‘생명을 만드는 존재, life-giver’의 의미로 ‘생산, 탄생, 출생(birth)’을 의미하며, 발트신화(Baltic mythology)의 *Dievas*⁵⁾와 동일한 존재이다. 러시아어의 родители ‘부모’, родственник ‘친척’, родной ‘출생의’, рождение ‘탄생, 태어남’, родиться ‘태어나다’ 등은 ‘탄생, 생명의 창조’와 관련된 어원을 공유한 동일어근 단어들이다. 페룬은 슬라브 판테온의 최고 신으로 ‘하늘, 천둥, 번개, 비, 법, 전쟁, 생산’의 신으로 숭배된다. 페룬은 슬라브 신을 언급한 문헌들에서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신의 이름이다. 문헌에서 페룬의 이름이 직접 명시되지 않더라도 하늘, 천둥, 번개, 태양 등의 상징적인 존재로 언급되곤 한다. 페룬은 발트신화의 *Perkūnas*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신으로, 리투아니아의 신 *Perkūnas*는 ‘천둥, 번개’와 ‘하늘의 신’을 뜻하는 단어이다.

벨레스는 볼로스(Волос)로도 알려져 있는데, 벨레스는 '하늘의 신' 페룬의 상대자 역할을 담당하는 '지하세계, 땅의 신', '가축의 신'으로 숭배된다.(이덕형 2001) 러시아어의 ВОЛОСЫ가 '머리카락'이나 '털'을 뜻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할 수 있다. 모코시는 슬라브 판테온에 모셔진 신들 가운데 유일한 여신으로 테오님의 어원은 mok- 'wet, damp, 젖은, 축축한'의 뜻으로, 만물의 어머니, 모든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대지의 신 Мать-Сыра-Земля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호르스(Хорс)는 태양신, 또는 달의 신으로 테오님의 어원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러시아의 역사학자 부트코프(Пётр Бутков)는 호르스를 '슬라브 족의 아폴로 신'으로 언급하였다. '태양'을 의미하는 이란어 어원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페르시아어의 'xoršid', 오세트어(Ossetian) 'xor'는 각각 '태양이 빛나다', '태양'을 뜻하는 단어로 테오님 호르스와 가장 밀접한 단어들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테오님은 이름을 구성하는 어원으로부터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이나 민족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어떠한 존재로서 역할을 하고 숭배되었는지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테오님을 구성하는 어원이나 어근을 역사적, 문화적인 맥락에서 비교연구를 수행한다면 보다 본질적인 의미와 전통문화 속에 숨겨진 신들의 의미와 역할 등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슬라브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테오님을 중심으로 각 신들의 의미와 역할을 밝히고, 신들의 이름, 즉 테오님이 가지고 있는 어원의 기원을 밝힘으로써 보다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슬라브 신화의 본질과 주변 민족이나 관련된 민족의 전통과 문화의 연계성을 밝히고자 한다.

슬라브 신화는 그리스-로마신화나 북유럽신화와는 달리 검증된 기록이 거의 전무한 신화이다. 기독교의 수용과 더불어 이교적 신앙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파괴되거나 말살되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하지만, 테오님의 연구와 더불어 주변의 민족이나 지역 문화의 비교연구는 민중의 생활이나 전통, 문화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생활습관이나 생활양식을 통해 슬라브신화 속 신들의 존재와 역할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재구성 한다면 검증된 기록이 거의 부재한 슬라브신화 연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리라 사료된다.

슬라브 신화에 언급된 모든 신들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블라디미르 대공의 슬라브 판테온을 중심으로 분석할 예정이며, 만신전에 세

워진 신들 이외에도 테오님과 관련하여 주변의 역사와 문화적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신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블라디미르 대공의 판테온에 세워진 7대 주신을 중심으로 신들의 테오님과 관련된 기원과 문화적 연관성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슬라브 신화에 나타나는 인도-이란어족(Proto-Indo-Iranian)과 관련된 문화적 연관성을 분석하여 슬라브 신화와 인도-이란어족의 신화나 문화적 접점을 밝히고 슬라브 신화의 본질과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II. 블라디미르 대공의 판테온: 테오님의 기원과 의미

AD 980년 기독교 수용 8년 전, 블라디미르 대공은 키예프에 여섯 신들의 우상을 세우며 이교도 개혁을 단행한다. 이와 관련된 원초연대기(The Primary Chronicle)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Vladimir then began to reign alone in Kiev, and he set up idols on the hill outside the castle with the hall: one of Perun, made of wood with a head of silver and mustache of gold, and others of Khors, Dazh'bog, Stribog, Simar'gl, and Mokosh'. The people sacrificed to them, calling them gods, and brought their sons and their daughters to sacrifice them to these devils. They desecrated the earth with their offerings, and the land of Rus' and this hill were defiled with blood.(The Russian Primary Chronicle, p. 93)

그 이후 블라디미르는 키예프를 통치하게 되었고 자신의 성 밖 언덕 위에 신의 우상들을 세웠다: 은발의 머리와 금색의 콧수염을 가진 나무로 만든 페룬과 호르스, 다쥐보그, 스트리보그, 시마르글, 그리고 모코시의 우상들. 사람들은 그것을 신이라 부르며 제물을 바쳤고 자신의 아들, 딸까지 이 마귀에게 제물로 희생시켰다. 그들은 제물로 땅을 더럽혔고, 루시의 땅과 이 언덕은 피로 더럽혀졌다.⁶⁾(원초연대기, p.93)

블라디미르 1세는 978-980년에 걸친 자신의 형제인 야로폴크(Yaropolk)와의 다툼에서 승리한 뒤, 키예프의 대공(the Grand Prince of Kiev)으로 즉위하게 된다. 키예프의 대공이 된 블라디미르 1세는 공국을 구성하는 다양한 민족과 부족들의 화해와 통합을 통해 국가적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최선책으로

민중들이 숭배하던 신들의 우상을 세운다. 이 블라디미르 대공이 세운 신전(Vladimir's gods/pantheon)은 슬라브족의 신과 인도-이란어족의 신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진 이질적인(heterogeneous) 조합의 통합체였다. 페룬(Perun), 다쥐보그(Dazh'bog), 스트리보그(Stribog)와 같은 슬라브족이 섬기는 신들과 호르스(Khors), 시마르글(Simar'gle), 그리고 모코시(Mokosh')와 같은 이란어족의 신들이 함께 숭배되었다.

인도-이란어군(Indo-Iranian)에 속하는 북이란계(the Northern Iranians) 유목민은 서쪽의 드네스트르 강(The Dniester River)부터 동쪽으로는 북코카서스(the Northern Caucasus), 남쪽으로는 흑해와 아조프해(the Azov Sea)로부터 북쪽의 동유럽 스텝지역(the East European foreststeppe zone)에 이르는 광대한 스텝지역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민족이다. 블라디미르 대공의 판테온에 인도-이란어족이 숭배하는 신들의 우상이 함께 세워졌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AD 965년 스바토슬라브(Sviatoslav)가 정복한 타만반도에 건재했던 트무타라칸 공국(Tmutarakan' Principality)을 통해 이란계 슬라브족인 안티족(Antes)⁷⁾과 이란계 알란족(Alans)⁸⁾으로부터 유입된 결과라 추정하고 있다. (Kalik J. & A. Uchitel, 2018, p. 69)

슬라브어에서 '하늘, 신'을 뜻하는 *b/g-는 러시아어의 бог, 우크라이나어 бг, 불가리아어 бог, 세르보-크로아티아어 бог, 체코어 bůh 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PIE 어원으로 고대 인도-이란어 bhágas, 고대 페르시아어 бага-, 아베스탄어 baxa 'lord' 등과 비교해 볼 때 음가와 철자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라크(Iraq)의 수도, '바그다드(Baghdad)'라는 이름은 이슬람교 지배 이전인 8세기경에 붙여진 이름으로 '신의 선물(gift of god)'이라는 뜻으로 신을 의미하는 bagh-와 PIE 어근 *do- 'to give'에서 파생된 -dād 'given'의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다. PIE *bagh-는 산스크리트어의 Bhaga, 그리고 러시아어의 bog와 동일어근으로 '신(god)'을 의미한다.(Watkins 2000)

또한, 러시아어의 бог는 богатый '부유한, 풍부한', убогий 와도 동일어근 단어이다. 고대러시아어 оу-богъ에서 알 수 있듯이 '가난한(бедный)', 궁핍한(нищий), 불구의(увечный)의 뜻으로 '신으로부터 받은 축복, 행운'이 없다는 뜻으로 접두사 оу- 'без'와 -богъ 'богатство, достояние, счастье'로 구성된 단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단어의 구성은 어휘의 의미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를 함께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 슬라브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테오님 분석은 신들을 섬기고 숭배하던 슬라브인들의 정신세계와 생활문

화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유익한 도구가 아닐 수 없다.

10세기 키예프 루시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블라디미르 대공은 AD 988년 기독교(Christianity)를 수용하기 이전에는 민중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을 숭배하고 동물을 신성시하며 종교적 의식을 행하던 슬라브족의 전통적 문화와 관습, 다신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슬라브족의 수호신 격인 6대 주신의 우상을 세워 슬라브 판테온/만신전을 만들기도 했다. 블라디미르 대공이 만든 슬라브 판테온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많지 않지만, 슬라브족의 다신교적 신앙과 이교주의와 관련된 기록은 드물지만 여전히 남아있다.

블라디미르 대공의 기독교 수용은 민중들의 요구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온전히 다양한 문화를 가진 다양한 종족들에 대한 통치권 확보와 중앙집권체계의 필요성과 효율성, 국가체계를 갖추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위로부터 아래로’의 외래 종교문화의 이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외래 이식 문화는 쉽사리 민중들의 정신세계를 바꿀 수 없었고, 오랜 시간 동안 혼용되어 생활문화 속에 존재하였다. 신들에 대한 이름이나 의식, 전통 등을 살펴보면 이 신들의 역할과 그 사회 속에서의 지위, 영향력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블라디미르 대공의 판테온에 섬겨졌던 동슬라브 7대 주신은 페룬, 호르스, 다쥐보그, 스트리보그, 모코쉬, 시마르글 6대 주신과 벨레스를 포함한다. 실제로 블라디미르의 신전에는 벨레스를 제외한 6대 주신의 우상만이 세워지는데, 벨레스는 페룬과는 경쟁구도를 갖는 신으로서, 페룬이 높은 곳에서 하늘을 지배하고 천둥과 태양을 다루는 신의 존재라면, 벨레스는 높은 하늘에 반대 개념인 낮은 땅이나 지하세계를 지배하는 상반된 존재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언덕이나 산, 높은 곳의 지명(toponyms)은 페룬과 관련성을 가지는 반면, 낮은 장소나 강의 하구 등에서는 벨레스와 관련된 지명들이 발견된다.

1) 페룬(Перун)

페룬(Perun)은 하늘, 천둥, 번개, 비, 법률, 전쟁 등을 상징하는 범슬라브적(Pan-Slavic) 존재이며 동슬라브 판테온의 최고 신이다. 동-서-남슬라브를 통틀어 가장 많은 역사적 기록과 흔적이 남아있는 신이 바로 페룬이다. 동로마의 역사학자 프로코피우스(Procopius)의 저술 De Bello Gothico(6C)에도 페룬이 등

장한다. 페룬은 리투아니아에서는 Perkunas, 라트비아에서는 Perkons, 프러시아에서는 Perkonis, 러시아와 체코에서는 Perun으로 알려져 있는 천둥, 번개를 관장하는 신이다. 남슬라브족이 섬기는 신은 번개를 만드는 페룬 뿐이다. 그들은 소와 동물을 제물로 바치며 섬긴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천둥과 번개를 지배하는 신이라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턱수염이 수북하고 흰 머리에 금색 콧수염을 가진 모습으로 염소가 끄는 전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형상화되며, 금도끼를 휘두르는 이미지로 표현된다. 이러한 이미지는 북유럽신화에서는 토르(Thor)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토르 역시 천둥의 신으로 망치를 들고 다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페룬은 하늘의 가장 높은 곳⁹⁾에 살며, '선'과 '정의'를 실현하는 신으로, 해를 가하는 인간이나 적을 번개(thunderbolt)로 내리치거나 공격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한다. 페룬의 번개는 주변의 많은 신화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옥함, 생산, 다산(fertility)'을 상징하며, 겨울의 악한 기운을 정화하고 봄의 새로운 탄생과 선한 기운의 상징이다.

페룬의 어원은 원인도-유럽어(PIE)의 '천둥/번개의 신' *Perkw̥nos 또는 참나무(oak)를 뜻하는 *perkwu와 관련이 있다. 공통슬라브어(Common Slavic)의 перунъ는 발트신화(Baltic mythology)의 perkūnas/pērkons '천둥, 번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리투아니아어 단어 "perkūnas"는 '천둥'의 의미와 '천둥과 번개의 신'을 뜻하는 중의적 의미로 사용된다. 이때의 per-는 '(번개 등) 치다, 때리다'의 의미를 갖는다. 핀란드 신화에 등장하는 '하늘의 신' 우코(Ukko) 역시 발토-슬라브 기원과 관련이 있으며, 문화적 전통이나 의식, 공예품, 지명(toponyms) 등에서 슬라브족, 발트족, 그리고 핀란드인 사이에서 페룬과 관련된 숭배사상과 제사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페룬의 존재가 노브고로드에 알려진 시기는 AD 980년 블라디미르 1세가 도브리냐(Dobrynia)를 파견한 이후이며, 그 이전에는 천둥-번개 신의 존재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키예프에만 페룬의 숭배의식이 퍼져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AD 945년의 일이며 이고리 대공이 '루시-비잔틴 협정'을 포함한 원정 전 의식을 행하던 기록이 남아있다.

In the morning, Igor' summoned the envoys, and went to a hill on which there was a statue of Perun. The Russes laid down their weapons, their shields, and their gold ornaments, and Igor' and his people took oath (at least, such as were pagans), while the Christian Russes took oath in the church of St. Elias, which is

above the creek, in the vicinity of the Pasyncha square and the quarter of the Khazars.

아침에 이고리는 사절단을 불러 페룬의 동상이 있는 언덕으로 갔다. (이고도) 루시인들은 자신의 무기, 방패, 그리고 금장신구를 내려놓은 후, 이고리와 함께 맹세를 했고, 반면에 기독교를 믿는 루시인들은 파신차(Pasyncha) 광장과 하자르인들(Khazars)이 사는 구역 근처의 개울 위쪽에 위치한 성(St.) 엘리야 성당에서 맹세를 했다.¹⁰⁾

서슬라브족에게는 표룬(Piorun)으로 알려진 페룬은 귀족과 군대의 수호신이며, 숲과 산의 주인으로 유명하다. 무엇보다도, 그를 상징하는 나무는 큰 나무들이다. 특히, 리투아니아에서도, 슬라브 국가들에서도 오크나무(떡갈나무/참나무; oak, дуб)는 페룬의 나무로 널리 알려져 있다. 페룬에게 바치는 제물로는 수탉이 보통이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소, 곰, 수컷 염소가 바쳐졌다. 이러한 의식은 숭배하는 신의 '기운, 힘(power)'을 얻기 위해 행해진다. 신의 본질을 얻기 위해 신에게 바쳐진 희생제물을 먹는 것은 오늘날 성체를 받아 모시는 의식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크나무는 다른 신화에서도 등장하는 하늘과 지하세계를 연결하고 있는 세계수(World tree) 나무로도 잘 알려져 있다. 더불어, 페룬은 '정의(Justice)'와 '법(Law)'의 신으로 기독교 수용 이후에는 페룬의 이미지는 성인 엘리야(Saint Elya/Elias) 또는 예언자 엘리야(Elijah)의 이미지로 흡수되어 나타나고 있다.

2) 호르스(Xorc, Xopoc)

호르스는 원초연대기와 이고리원정기에 등장하는 슬라브족의 주요 신이다. 호르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으나 다쥐보그와 동일시되는 '태양'의 신으로 낮에는 하늘을 누비고 다니며 밤에는 지하에 머문다고 한다. 호르스의 테오님은 인도-이란어의 태양을 뜻하는 xurset '빛나는 태양'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페르시아어의 xoršid '태양', 오세트어(Ossetian) xor '태양'에서 왔다. 이러한 현상은 슬라브족과 이란 계열의 민족이 문화적 접촉이나 융합의 결과로 차용되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며 슬라브어로 옮겨진 이란어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블라디미르 대공이 통치하던 그 당시의 상황은 호레즘(xore3

м) 또는 호라즘(хоразм)¹¹⁾이란 곳에서 온 이란계 군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것으로 보아 슬라브족들만이 아닌 다른 민족들, 특히 이란계 민족들과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호레즘은 중앙아시아 아랄해 남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지명은 페르시아어로 '태양의 땅', 즉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에 위치한다는 의미에서 유래한다. 현재의 카라칼파크스탄을 포함한 우즈베키스탄 북서부 지역과 투르크메니스탄 북부에 걸쳐 있다.

하지만 호르스가 인도-이란계의 Xors '태양'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과는 달리, 테오님 호르스의 기원은 오세트어에서 차용된 어근 xorz '좋은, good'라는 주장이다. 원래는 "of Xors, belonging to Xors (호르스의, 호르스에 속하는)"의 의미로 러시아어의 xorošij '좋은'의 뜻이 되었다는 주장으로 슬라브학과의 견해이다.(Obnorskij 1929, Borissoff 2014, p. 15에서 재인용)

또 다른 주장은 호르스가 круг '원, 동그라미'를 의미하는 어원 'хор'에서 왔으며 태양의 둥근 모양을 상징한다. 호르스에 대한 숭배의식은 기독교 수용 이후에도 뚜렷이 나타나는데, 주요 의식 중 하나가 사람들이 모여 хоровод라는 원형춤을 추고 특별히 준비한 제사음식을 바치는데, хорошуль이라는 닭고기를 넣어 만든 둥근 모양의 피로그이다. 오늘날에도 불가리아에서는 хоро라는 원형 춤을 추는데, 원형을 의미하는 어근 хор-가 사용된 것을 알수 있다. (Капица 1999, p.72) 어근 хоро와 더불어, 어근 коло 역시 의미론적으로 둥근 물체나 둥근 개념과 관련이 있다. 현대 러시아어에서도 колокол '종'이나 колобок 'круглый бок, 둥근 빵', коловорот '물의 소용돌이' 등과 밀접한 의미적 관계를 맺고 있다.(Гаврилов & Наговицын, 2002. p. 94-95)

호르스의 이미지는 흔히 잘생긴 젊은 청년으로 묘사되고 그의 우상에는 태양을 뜻하는 표식이 발견된다. 또는 하얀색 말로 표현되는데 매일 지평선을 따라 달리는 말이나 백마를 탄 젊은 청년으로 묘사된다. 매일 아침 해가 뜰 때 동쪽에서 나타나 말을 타고 서쪽으로 달려, 해가 지면 땅속으로 들어가 어둠이 가득한 바다(по морю Мрака)를 따라 달린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다시 동쪽 하늘에 나타난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슬라브인들은 달과 별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호르스와 관련지어 설명하기도 한다.(Крючкова 2021, p. 54) 또한 일부 학자들은 호르스를 페룬과 모코시의 자손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페룬, 모코시, 호르스가 삼위일체 또는 삼합(triad)을 이루는 동슬라브의 주요한 신이라 주장하고 있다.(Dixon-Kennedy 1998, p. 149)

3) 다쥐보그(Даждѣбог, Дажбог)

다쥐보그(Dazhbog, Даж(д)ѣбог)는 하늘의 신 스바로그(Svarog)의 아들, 스바로쥐치(Svarozhich)의 형제로, '태양', '빛', '번영, 번성', '풍요로움', '행복', '운명', 그리고 '정의'의 신이다. 다쥐보그는 흔히 하늘의 신 스바로그의 아들이라고 묘사되는데, 다쥐보그를 이해하려면 스바로그부터 이해하여야 한다. 스바로그는 태양을 상징하는 하늘의 신으로, '매우 빛나는, 뜨거운'의 의미를 가진 산스크리트어 svar 'bright, clear, shining'에서 파생되었다. 스바로그는 다쥐보그와 스바로쥐치의 아버지로서 등장하는데, 전통적으로 모든 신의 아버지(father of all gods)로 간주된다. 이후에는 다쥐보그와 스바로쥐치의 존재로 대체된다. 한때 스바로그에게 바쳐졌던 사원들은 동물을 제물로 바치거나 사람까지도 제물로 바쳐진 증거도 발견된다. 스바로그의 아들인 다쥐보그는 형제인 스바로쥐치가 있는데, '불'과 '예언'의 신이다. 다쥐보그가 휴식을 취하는 밤에 그는 다쥐보그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들의 집을 밝혀준다고 한다. 이러한 '태양, 하늘'의 신, 스바로그의 자식들을 집합적으로 부칭(отчество, patronymic)의 형식을 취하여 스바레비치(Svarevichi)라 하는데, 이는 하늘을 뜻하는 인도-이란어 어원 svarga에 기인한다.(Капица 1999, pp. 31-32)

다쥐보그는 태양의 빛과 열기로 새로운 생명을 키우고, 영양분을 제공하는 원천 역할을 하며, 점진적으로 그의 아버지 스바로그를 대신하여 동슬라브 판테온의 주신으로 등극한다. 다쥐보그는 '온기'와 '빛'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겨우내 눈과 얼음이 덮이고, 밤이 긴 겨울을 감당해야 했던 초기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숭배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Dixon-Kennedy, 1998, p.61)

태양의 신 다쥐보그가 사라진다는 것은 불길한 기운, 불행의 도래를 뜻한다. 예를 들어, '늑대들이 다쥐보그를 먹어버렸다'고 표현하는 일식(eclipse)과 같은 현상들은 역병이나 기근, 전쟁 등의 불행을 예언하는 증표라 할 수 있다. 러시아인들은 다쥐보그가 천궁(Zodiac)의 12개 왕국을 다스린다고 믿는다. 그를 시중드는 두 명의 하녀가 있는데 Zvezda Dennitsa (새별, the morning star, 금성)와 Zvezda Vechernyaya(명성(明星), the evening star, 금성)라고 한다. 이들은 다쥐보그의 딸이라는 버전도 존재하는데, Mesyats(the moon)와 결혼하여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별이라고 한다. 이들은 특별한 일을 담당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타고 나가실 전차를 끄는 백마를 빗질하고 털을 다듬는 일이라고 한다. 이들은 각각 the Morning Star와 the Evening Star의 오로라로

서, 전자는 달(the Moon, Месяц)과 결혼한 여전사로 태양이 매일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Dixon-Kennedy 1998, pp. 61-62) 슬라브족들은 Zvezda Dennitsa를 중무장한 용맹한 여전사로서 묘사하고 있으며, 말과 퇴마(exorcism), 그리고 보호의 여신으로 섬긴다. 특히, 전쟁 중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주 언급된다. "오, 여전사여, 당신의 베일로 (감싸) 나를 보호해 주소서, 적군으로부터, 적군의 총과 화살로부터(Defend me, O maiden, with your veil from the enemy, from the arquebus and arrow)" (Green, 1995, p. 137) Zvezda Vechernyaya는 the Evening Star의 오로라이며 Zoryas의 어머니이다. 태양신이 돌아오면 저녁마다 하늘의 문(Gates of Heaven)을 닫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 역시 '보호, 예방'과 '퇴마'의 수호신이다.

리바코프에 따르면 호르스와 다쥐보그는 둘 다 태양의 신이다. 호르스는 헬리오스(Helios), 다쥐보그는 아폴론(Apollo)과 각각 비유할 수 있다고 서술한다. 호르스는 인도-이란어에서 차용한 단어이며, 다쥐보그는 슬라브어 단어에서 유래하였다.(Рыбаков 1987)

4) 스트리보그(Стрибог)

스트리보그는 동슬라브족이 섬기던 '바람의 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바람'을 다스리고 생명의 숨과 호흡, 공기의 흐름에 관여한다. 스트리보그의 테오넘은 고대슬라브어의 'старший', 'дядя по отцу'를 의미하는 스트리-와 어근 бог의 합성어이다. 이고리원정기에서는 바람을 '스트리보그의 손자들(стрибожьими внуками)'로 언급했다. 바람의 신, 스트리보그의 기념일이 언제였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다쥐보그와 함께 기념하고 숭배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동슬라브인들에게는 스바로그의 아들이 다쥐보그이며 그의 형제가 바로 스트리보그이기 때문이다. 농업에 종사하던 슬라브인들에게는 비와 더불어 바람도 농사를 짓고 경작을 하는 데 필수적인 자연력이기 때문이다. (Капица 1999, p.70)

특정 지역에서는 스트리보그는 '부의 신(god of wealth)'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람이 닿는 곳까지 부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혹독한 날씨와 척박한 환경의 러시아에서는 '겨울의 왕'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대지 여신의 뱃속까지 추위에 떨게 만드는 존재로 묘사되기도 한다.

스트리보그의 테오넘은 러시아어 동사 простираться-простереться '널리 퍼지다'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명령형 스트리와 бог가 결합

한 형태로, 다쥐보그(Дажь+бог)의 테오님 조어 방법과 동일하다. 이처럼 다쥐보그와 스트리보그의 밀접한 상호관계는 동일한 명령형의 테오님 조어법과 더불어 고대러시아어 문헌에 나란히 언급되었다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다.

스트리보그에 대한 기록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역시 일관적이지 않다. 특정 학자들은 스트리보그가 고대 인도-이란어의 *sribaya*에서 파생한 선하고 이로운 신으로 주장하기도 하고, 일부 연구자들은 폭풍우나 회오리바람과 같은 파괴력을 가진 자연의 신, 전쟁의 신, 그리고 해로운 신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러한 가설은 이고리원정기에서 찾을 수 있으며, 고대슬라브어 *стриити* (*sъtъri) '파괴하다, 제거하다'의 의미를 지닌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기독교 수용 이후 스트리보그에 대한 의식과 숭배사상은 사라지게 된다.

스트리보그에 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인도-이란계의 신인 루드라(Rudra)와의 연관성이다. *бог-отец* '신-아버지', *старый бог* '늙은 신', *дед ветров* '바람의 할아버지'로 알려진 루드라가 '바람'을 다스린다는 점에서 스트리보그의 역할이나 기능이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고리원정기에도 "Се ветри, Стрибожи внуци, веют с моря стрелами на храбрыя полкы Злотоуста... како первое погани веровалив идолы и требы им клали..."라는 문구가 쓰여있다. 분명, 하늘과 공기와 바람을 다스리는 신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특히 바람을 '스트리보그의 손자(Стрибожи внуци)'로 표현된 것이 특징적이다.(Капица 1999, p.70) 더불어, 스트리보그는 신들의 아버지인 로드의 또 다른 존재로도 묘사되는데, 이는 로드가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의 육체에 입김으로 '생명의 숨결(ветер жизни, дух)'을 불어 넣었기 때문이다. 스트리보그는 다쥐보그와 동일한 존재로도 여겨지는데, 이는 태양이 지면 달이 뜨는 것과 관련된 달의 의식에서 유래한다. 밤에 뜨는 달과 새벽에 뜨는 태양의 주기와 비유하여 늙은 달의 신(Месяц)가 젊은 태양의 신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 스트리보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使者) 중 대표적인 동물이 *стриж* '칼새, swift'이다. 칼새가 바람을 타고 재빠르게 비행하는 특성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고, 비유적 상징물이 되었다.(Гаврилов & Наговицын 2002, pp. 73-74)

5) 시마르글/세마르글(Симаргл, Семаргл)

세마르글은 ‘불’과 ‘비옥함(fertility)’의 신으로 폐륜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신이다. 세마르글은 변신술에 능하여 화염에 둘러싸인 젊은 전사의 모습이나 커다란 날개를 가진 개나 사자 모습으로 변신하곤 한다. 대부분 날개 달린 개의 모습이며 매우 영리하고 재빠른 것이 특징이다. 지하세계의 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태양과는 연관성이 없다.(Гаврилов & Наговицын 2002, p. 73) 고대 슬라브인들이 섬기던 반신(Полубожественное создание)의 존재이다. 시마르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것이 많지 않지만, 천상계와 지상계의 전달자, 씨앗, 새싹, 식물의 수호신, 불과 풍요로움의 신, 그리고 치유(исцеление)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 묘사된다.(Крючкова 2021, p. 50)

시마르글(Simargl)은 Simargl, Simorg, Simurg의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며, 원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씨앗이 열리는 생명수(Tree of Life)를 지키는 신으로 용의 모습 또는 개의 머리를 가진 새의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시마르글은 자신이 지키고 있는 생명수를 인간이 베는 위험을 막는 역할을 한다. 흔히, 모코시와 함께 언급되는데, 시마르글은 '집과 가정의 수호신(protector of home and family)'이다. 고대 수메리아(Sumeria)의 여신 이시타르(Ishtar)와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¹²⁾ 우크라이나에서 시마르글은 나무 위에 앉아 있거나 식욕이 왕성한 물고기가 지키는 섬 위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특히, 10세기경에는 우크라이나 여성의 보석 장식으로 시마르글의 문양이 자주 사용되었다고 한다.(Dixon-Kennedy 1998, p. 258)

시마르글의 테오넘과 관련된 어원 분석은 이견이 다양하다. 1841년 러시아의 학자 표트르 프레이스(Пётр Пре́йс)는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Asima와 Nergal에 상응하는 Sim과 Rgel의 두 개의 분리된 테오넘의 가능성을 제시했다.(Preys 1841, pp. 31-52) 그러나, 슬라브학파의 일부 학자들은 세마르글이란 테오넘이 슬라브조어의 어원 *Sedmor(o)-gol'v'b, «Семиглав» > *седм(sedm) 'seven'에서 왔다고 주장한다. 일곱 개의 머리를 가진 신이란 뜻의 'семиглавный'에서 -главный가 생략된 형태이다.(Мелетинский 1990, p. 672) 이런 의견에 반하여, 일부 학자들은 시마르글의 테오넘은 이란계 페르시아의 신 시마르그(Simarghu)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Trever 1933, pp. 293-329) 이러한 주장은 Rybakov(1981)에 의해 재차 지지를 얻게 되는데, 그는 시마르글의 어원을 두 개의 어원으로 분석한 것은 오타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시마르글의

역할이 씨앗, 새싹, 뿌리의 수호자로 하늘과 땅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공통점을 강조한다. 특히, 중세 고문헌에 등장하는 Сим과 Рѣгл을 이란계의 Семурв(Simurg)와 동일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했지만, 불새(жар-птица)와의 연관성은 배재할 수 없다고 하였다.(Гаврилов & Наговицын 2002, p. 93)

6) 모코시 (Мокошь, Макошь)

모코시는 슬라브 판테온의 유일한 여신이다. 모코시의 근본적인 기능과 역할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원래 모코시는 물과 비, 즉, 땅에서 나는 물과 하늘에서 내리는 물인 비의 여신으로 탄생과 풍요로움(плодородие)을 관장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실을 짓고 천을 만드는 방적(пряде-ние)과 직포(ткачество)와 같은 여성의 일을 관장하게 된다. 많은 학자들은 모코시의 테오님은 '방적(пряде-ние)'을 의미하는 PIE 어원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Капица 1999, p. 48). 슬라브학자들은 모코시의 어원이 мокр- 'wet, damp' 젖은, 축축한'로 대지의 여신 Mat'-Syrja Ziemlja (Moist Mother Earth)가 의인화한 것으로 여긴다. 또 다른 의견은 '운명(судьба)'을 뜻하는 어원 кош-, кошт와 мать의 ма-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로, '운명의 실을 짓는 신'이란 뜻이다. 보통 운명을 결정하는 요정이나 신들은 삼인조로 구성이 되는데, 모코시는 그중에서도 최고의 여신이라 할 수 있다.(Гаврилов & Наговицын 2002, pp.82-83)

하늘을 지배하고 생명의 씨앗인 '비'를 내리는 존재가 페룬이라면, 하늘의 씨를 받아 품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존재가 대지라 할 수 있다. 모코시의 이미지는 오늘날까지도 러시아 자수 문양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대부분 큰 머리와 기다란 손을 가진 존재로서 묘사된다. 모코시는 양털을 깎고, 그것을 물레질하여 실을 만드는 여성의 일을 관장하는 운명의 신(Goddess of fate), 다산/풍요의 신(Goddess of fertility)으로 묘사된다. 여성의 지혜, 출산, 가사 등의 여성과 관련된 일을 맡아 주관하는 신으로 '하늘'과 '땅'의 결혼을 성사시키는 스바로그의 아내로도 묘사된다. 리바코프는 모코시를 '슬라브족의 위대한 여신(the Great Goddess of the Slavs)'으로 언급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코시는 우주 만물의 여신에서 집과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의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농부들은 모코시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 제물을 바친다. 바쳐진 제물이 만족스러우면 모코시는 여성들이 실 짓는 일을 도와주거나 심지어는 밤에 직접 일을 대신해 주기도 한다. 가사 일을 소홀히 하는 게으른 여성들에게는 실이 엉키게 한다거나 밤마다 음산한 소리를 내면서 벌을 주기도 한다. 나중에는 모코시의 몇몇 기능과 역할이 키키모라에게 이전된다.(Капица 1999, pp. 48-49)

기독교 수용 이후 16-17C 초기의 문헌을 보면, 고백성사를 볼 때, 여성들은 '모코시에게 다녀왔는지의 여부'에 대해 답을 해야했다.(Капица 1999, pp. 48-49) 그 당시 여성들은 모코시가 자신에게 바쳐진 제물에 만족하면, 빨래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록은 모코시가 '물의 여신 (Goddess of Water)'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모코시의 우유(Mokosh's milk)'라고 부르는 것도 동일한 이유이다.(Green 1995, pp. 74-75)

모코시의 흔적은 금요일에 물레질하는 여성을 벌하는 여자 귀신 모코샤(Mokosha)의 전설 속에 남아있다. 모코시는 금요일을 신성시하고 기념하는데, 이러한 전통은 기독교 수용 이후에는 성녀 파라스케바(St. Paraskeva- Friday)¹³⁾로 이어진다. 특히, 게르만 신화(Germanic mythology)에 등장하는 오딘의 아내 프리그(Frigg)가 영어의 Friday(Frigg's day > Friday)에서 왔다는 사실을 되짚어 보면, 모코시를 기념하는 날이 금요일이란 것이 웬지 낯설지 않다.(Гаврилов & Наговицын 2002, p. 82)

7) 벨레스 (Велес, Волос)

벨레스는 '가축과 부'의 신(бог домашнего скота и богатства)으로 알려져 있다. 다수의 학자들은 테오님 '벨레스'가 단어 'волохатый'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волохатый는 '털이 덩수룩한'의 의미를 갖는 단어 'мохнатый'와 동의어다.(Капица 1999, pp. 22-24) 벨레스는 볼로스(Волос)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털', '머리카락'을 의미하는 러시아어의 ВОЛОСЫ와도 같은 어원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결혼식에서는 신혼부부를 털외투 위에 앉게 하는데, 그때 털 부분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한다. 이런 의식은 이 신혼부부가 자식들을 많이 낳고 다복하고 부유하게 살기를 바라는 의미이다.(박미령 외 2인, 2021, pp. 62-63) 유라시아의 드넓은 스텝지역에서 유목생활을 하거나 가축을 길러 생활을 유지했던 옛 슬라브인들의 생활상을 돌이켜 볼 때, 가축은 생활의 필수 요소임과 동시에 부의 상징이 아닐 수 없다.

벨레스는 인간들에게 가축을 죽이지 말라고 가르치며, 농사에 활용하는 법을 알려준 신이다. 그는 또한 인간들에게 재능, 육체적 힘, 좋은 목소리, 청력 등을 분배하는 신이라 여겨졌다. 사냥으로 먹고 살던 시절에는 사냥의 성패(成敗)는 풍요로움, 부와 직결된다. 이러한 이유로 벨레스는 사냥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бог удачи на охоте)으로 알려졌고, 자주 곰의 형상으로 묘사된다. (Крючкова 2019, pp. 26-28)

벨레스는 페룬의 경쟁상대로 자주 언급이 되는데, 천둥과 번개, 전쟁의 신 페룬은 하늘의 힘을 다루는 신인 반면, 벨레스는 지상의 힘, 다시 말해, 땅이나 물, 지하세계와 관련이 깊다. 자주 뿔이 달린 존재로 묘사되며 가축의 무리와 지하세계를 관장하는 신으로, 영적인 세계의 신비로운 힘과 연관되어 있다. 벨레스가 지하세계에서 시작되는 모든 수원(水原)을 틀어막으면 지상에는 가뭄(засуха)이 오고, 사람들로 부터 가축을 훔쳐 병을 실어 되돌려 보낸다. 이럴 때는 페룬이 나서서 벨레스와 싸움을 벌인다. 벨레스는 뱀(Змей)과 동일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페룬과의 싸움에서 패하여 땅속으로 숨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부'와 '풍요(плодородие)'를 책임지기 시작한다.

페룬과 벨레스의 우상의 위치 역시 차별을 보인다. 키예프에 세워진 페룬의 우상은 '산 위에' 있고, 벨레스의 우상은 포돌(Подол), 즉 '산 아래', 강 근처의 '낮은 곳'에서 발견된다. (Толстая 2014, p. 88)

벨레스의 흔적은 슬라브인이 거주했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우상과 사원이 발굴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페룬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가진 신이라 할 수 있다. 907년 그리스와 맺은 무역협약서 텍스트에도 벨레스가 등장한다. 이는 벨레스가 '약속', '맹세', '서약'과 관련이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벨레스는 그리스 신화의 아폴론처럼 '음악', '시', '예술'의 수호자 역할도 수행한다. 이고리원정기에 보면, 보얀(Боян)은 '벨레스의 손자(велесовый внук)'라 명명된다. 보얀은 11세기에 유명했던 음유시인으로 '예언자'라는 별명도 가졌던 인물이다.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시와 노래뿐만 아니라, 역사, 문학, 종교, 신화 등 다양한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승되었다. 벨레스가 '가축', '부', '풍요', '물'의 신 또는 수호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시', '노래', '음악', '예술'의 수호자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기독교 수용 이후에는 벨레스의 역할이 부분적으로 성인 블라시(St. Blaise)로 옮겨간다. 벨레스 기념일에 농부들은 가축에게 빵을 먹인다. 가축들에게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면 농부들은 마을 근처에 도랑(борозда)을 파고, 블

라시 성인의 성상화를 들고 도랑을 따라 다니며 기도를 한다.(Крючкова & Крючкова 2019, pp. 28-29) 이 밖에도, 가축들이 병에 걸리거나 전염병이 돌면, 양, 소, 그리고 말의 꼬리를 함께 묶어 골짜기로 몰고 가 바위 위에서 제물로 바친다. 이러한 의식은 기독교 수용 이후에도 계속되었다.(Dixon-Kennedy 1998, p. 308).

III. 슬라브 신화에 반영된 타(他)민족 문화

슬라브인들은 혈연관계(blood)가 아닌 자신들의 삶의 영역과 터전, 생활양식과 문화를 공유하는 문화적 공동체로 이루어진 집단이다. 현재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동-서-남슬라브로 분화되어 각각의 언어와 전통, 역사, 문화를 영위하고 있지만, 슬라브족의 문화원형은 인도-유럽어족(Proto-Indo-European), 발토-슬라브어군(Balto-Slavic)에 속한다.

슬라브족은 오데르 강과 비스와 강 사이의 지역, 즉, 프리페트 강의 남쪽부터 카르파티아 산맥, 비스와 강, 오데르 강, 엘베 강, 부크 강의 상류를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에서 발원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지역에서 초기의 원시 슬라브인들은 석기시대를 거치면서 기원전 1300년경부터 시작된 루사티아(Lusatia) 문화¹⁴⁾를 공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다양한 민족이나 공동체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구성된 소위 인도-유럽어족들의 생활양식이나 문화를 흡수하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새로이 창출해 냈다.

인도-유럽인들은 유목생활이나 농경생활을 영위했는데, 대표적인 특징이 농경과 관련된 태양신, 바람신, 물의 신, 자연의 신 등을 숭배하고 자연의 이치와 섭리를 중요시하며 다신교적 신앙을 믿었다는 사실이다.(Watkins 1969) 이러한 인도-유럽어족의 문화원형을 영위하는 슬라브족에 관한 기록은 비교적 늦은 6세기에 나타난다. 아틸라와 같은 유목민의 약탈과 정복을 당하던 게르만족이 서유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동쪽의 슬라브족이 유목민들의 공격을 피하여 러시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사바르, 아바르, 하자르 등 유목민들의 공격과 약탈은 지속되었고 문화적으로 뒤쳐져 있던 슬라브인들은 유목민들에게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피지배층으로서 살며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거나 계승하게 된다.

1. 인도-이란어족(Indo-Iranian)과 문화적 유사성

역사적으로 슬라브인들과 인도-이란인들의 문화적 접촉이나 상호관계는 분명 존재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교류의 정도와 본질은 매우 제한적이고 다양하다. 슬라브 문화와 인도-이란 문화의 역사적 접촉은 동유럽, 특히, 스키타이인과 사르마티아인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슬라브족의 이동과 정착 중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키타이와 사르마티아는 이 지역에 살던 고대 이란어족으로 오늘날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과 일치한다.

이 시기에 슬라브족, 스키타이족, 사르마티아족 사이에 상거래나 문화적 교류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유럽에서 슬라브족의 이동과 정착은 알란족이나 오세트족과 같은 다양한 이란어 계통의 종족들과 접촉하게 되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언어적 측면에서는 슬라브어와 인도-이란어는 언어적 유사성과 공유하는 어휘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것은 역사적 접촉의 증거이며 인도-유럽어족의 공통된 어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원후 2세기부터 8세기, 즉, 고대 후기 때는 스키타이의 민족 개념은 점차 모호해졌고 광활한 폰토스-카스피 스텝(the Pontic-Caspian Steppe)에 사는 민족이나 무리를 언어와 상관없이 ‘스키타이’라고 불렀다. 중세 초기 무렵에, 원시 슬라브인들은 동유럽에서 이란계 민족 집단을 동화시키고 흡수하면서 동유럽에서 동부 이란어의 영향력을 축소시켰고, 튀르크족의 이동은 중앙아시아에서 사카인(Saka)들의 언어를 동화시켰다.

원인도-유럽어(Proto-Indo-European)의 인도-이란어군(Indo-Iranian)은 크게 인도-아리안(Indo-Aryan), 누리스탄(Nuristan), 그리고 이란어(Iranian)계 그룹으로 분류된다. 인도-아리안계는 사어(死語)인 베다 산스크리트어(Vedic Sanskrit)와 현재도 사용 중인 산스크리트어(Sanskrit)로 나뉘며, 이란어계는 서부 이란어(Western Iranian)와 동부 이란어(Eastern Iranian)로 양분화되는데, 고대 페르시아어(Old Persian)는 서부 이란어에 속하고, 스키타이어(Scythian), 오세트어(Ossetian), 사카어(Saka), 사마티아(Sarmatian)어로 세분화된다.(Watkins 2000)

폰토스-카스피 스텝지역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다양한 민족이나 집단, 공동체들의 문화적 유산은 동시대에 문화적 교류나 접촉을 통해서 전달되거나, 동시대가 아니더라도 이후에 시(時)차를 두고 공유하여 서로에게 밀접한 영향을 주는 문화가 바로 인도-유럽어족의 문화, 발토-슬라브어군의 문화, 그리고, 인도-이란어군의 문화이다. 슬라브족들은 3500년 동안 구전되어 온 베다 산스크

리트어, 산스크리트어, 그리고 고대 페르시아어, 스키타이어, 오세트어, 사카어, 사마티아어 등이 있다. 특히, 산스크리트어와 이란어계 언어들은 슬라브문화 연구에 필요하다. 왜냐하면 테오님의 어원 분석을 통해 의미를 밝히고 테오님의 역할을 비교 분석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우크라이나 지역에는 기원전 9세기경부터 스키타이족(Scythians)이 거대한 제국이 이루고 살고 있었다. 스키타이족은 기원전 8세기부터 2세기까지 현재의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아시아 북서부의 스텝지역에서 유목생활을 했던 인도-유럽어족의 일부이다. 서쪽으로는 도나우 강, 동쪽으로는 돈 강, 북쪽으로는 드네프르 강에 이르는 상당히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이들은 광활한 스텝지역을 누비던 기마유목민족으로 궁술에 능했다고 한다. 스키타이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 *skuthēs* (Σκυθης)와 *skuthoi* (Σκυθοι)에서 온 '활을 쏘는 사람들, archers'이란 뜻이며, 스키타이어(the Scythian endonym)의 *skuḍatā*에서 파생되었다. 스키타이는 *Saka*, *Shaka*, *Sacae* 등으로 불리었는데 이는 고대 페르시아어로 '흑해 너머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아시리아인들(Assyrians)은 이들을 이쉬쿠자야(*Iškuzaya*)라 불렀다. 원래 스카타이는 사마티안(Sarmatians), 스키타이인(Scythians), 사카인(*Saka*), 키메리아인(Cimmerians) 등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되었지만, 고대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사람들은 유라시아 스텝을 삶의 터전으로 영위하던 다양한 기마유목민족들을 '스키타이'라 명명하였다.

스키타이족이 사용하던 스키타이어는 인도-유럽어족 중에서도 인도-이란어군(Indo-Iranian), 북이란어계(Northern Iranian) 언어에 속한다. 인도-이란어군(Indo-Iranian)은 인도-아리안족, 이란족, 누리스탄족으로 세분화되는데, 이들은 광활한 유라시아 초원에 생활 터전을 가지고 있던 민족으로 기원전 3000-4000년경 남서쪽으로 이동하여 정착하였고, 이후 슬라브족과의 관련성을 갖게 되는 시조가 되었다. 현재 슬라브족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울지라도 인도-유럽어족의 공통적 문화, 유라시아 대륙에 거주하던 기마유목민족의 문화적 전통이나 문화원형은 슬라브족이 계승하거나 공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오세티아-알라니아 공화국¹⁵⁾의 오세트어(Ossetian)가 이란어계의 언어이며, 오세트인은 8세기경 북코카서스 지역에 알란 왕국을 세운 이란계 유목민족인 알란족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다.

알라니아(*Alania*)는 9세기에서 13세기까지 현재의 키르카시아(*Circassia*), 체첸공화국(*Chechnya*), 인구세티아(*Ingushetia*), 그리고 북오세티아-알라니아(*North*

Ossetia-Alania) 공화국 지역에 번성했던 이란계 알란족이 세운 중세 왕국이다. ‘Alania’라는 이름은 고대 인도-이란어(Proto-Indo-Iranian) 어원 *Aryāna-의 파생 형태인 *arya- ‘Aryan’에서 왔다. 고대 페르시아어의 어원 *Aryānām ‘of the Aryans’에서 파생된 이란(Iran)과 동일어근 단어이다. 알란족(Alans, Alani)은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4세기까지 폰틱-카스피 스텝지역을 지배하던 동이란계 기마유목민족의 한 부류로 이란계 언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슬라브 신화와 기타 신화

1) 다두(多頭)와 다수(多手)의 신

슬라브 신화의 특징 중 하나는 머리가 여러 개 달린 다두(多頭)의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그리스-로마신화, 북유럽신화, 켈트신화 등과는 다소 이질적이라 할 수 있다. 신화학자들은 슬라브족의 다두신(多頭神)의 존재는 그 역사적 근원을 인도-이란어족과의 연관성에서 찾는다. 인도 신화의 브라흐마(Brahma) 또는 아그니(Agnij) 등의 신들도 머리가 여러 개인 다두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러한 인도-이란어족과 슬라브족의 연관성과 영향력에 힘을 싣고 있다. 중앙아시아 대륙에서 발원하여 인도, 이란, 그리고 동유럽으로 이동한 원시 유목민족의 전통 신앙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변형되고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두(多頭)와 다수(多手), 즉 머리가 여러 개 달리거나 손이 여러 개로 표현된 신들의 모습은 인도의 종교나 예술의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추상적 관념을 주고받거나 인간과 신의 존재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베다의 전통에서는 3(triads)과 5(pentads)가 중요하다. 여러 개의 얼굴은 브라마(Brahma’s four heads) 또는 크리쉬나(Krishna)¹⁶⁾의 많은 머리처럼 초월적 신성함을 의미한다고 한다.

작소 그라마티쿠스(Saxo Grammaticus)¹⁷⁾에 의하면, 아르콘(Arcon) 성 안의 사원에 스반토비트(Svantovit, ‘Strong Lord’)의 우상이 세워져 있다고 기술했다. 스반토비트의 모습은 머리가 네 개 달린 나무로 만든 우상이었다. 우상이 모셔진 사당의 바깥쪽 벽은 그림과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지붕은 빨간색이었다. 내부는 네 개의 기둥이 지붕을 떠받치고 있고 벽지는 두꺼운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스반토비트의 네 얼굴은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향하고 있다. 오른쪽 손에는 비싼 금속으로 된 제사용 뿔잔을 들고 있고 왼손은 오른손

아래 포개고 있다. 또한, 루게비트(Rugievit)/루예비트(Ruievit) 역시 머리가 일곱 개 달린 오크나무로 만들어진 우상이다.

베다에 등장하는 주요 신들 중 루드라(Rudra)는 '바람', '폭풍', '사냥'의 신이다. 루드라는 '포효하는 자', '울부짖는 자'라는 뜻의 난폭하고 사나운 신의 존재였다. 이후 루드라는 시바(Shiva)라는 별칭을 갖게 되는데, 형용사 śiva는 '친절한'의 뜻으로 부드러운 비, 바람을 가져다 주는 친절한 루드라 지칭한다. 반면, 고라(Ghōra)는 '난폭한, 거친' 루드라를 뜻하는 것이다. 또한 트리무르티(Trimūrti)는 힌두교의 최고 삼신으로 '창조-유지-파괴'의 순환론적 우주론의 기능을 담당하는 신이다. 창조신인 브라흐마(Brahma)-보존자 비슈누(Vishnu)-파괴자 시바(Shiva)의 삼위일체 본질이자 총체가 바로 트리무르티이다.(이온스 2004) 슬라브족 역시 주요한 세 신들을 융합하여 삼합체(triad, trinity)로 섬겼는데, 시간과 공간에 따라, 스바로그-페룬-다쥐보그의 삼합체, 또는 다쥐보그 대신 스베토비드(Svetovid)나 벨레스(Veles)가 융합하여 삼합체를 이룬다.

2) 세계수(World Tree)와 용, 뱀

인도-유럽인들의 세계관 속에는 하늘/천당과 땅/지하/지옥의 관념을 담은 세계수(World Tree)가 존재한다. 현상세계와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땅과 하늘, 지옥과 천당의 관념적 구분을 결정짓는다. 또한 태양처럼 높은 하늘세계에는 신성한 신들이 살고 있고, 지하세계에는 망자(the dead)와 악귀들이 살고 있으며, 땅 위 세상에는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다고 믿는다.(Watkins 2001)

일찍이 그리스 정교를 받아들인 슬라브인들은 이승과 저승, 즉 현세와 내세, 삶과 죽음의 이분법적 사고 이외에도 민중들의 전통과 문화 속에 살아있는 이교도적 세계관이 살아있다. 야비(Явь), 나비(Навь), 프라비(Правь)는 이교도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세 개의 추상적 공간, 영적인 공간이다. 야비는 "я вижу", "явно", "является" 등의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눈에 보이는' 세계, 즉 현상세계, 물질세계를 나타낸다. 나비는 죽은 조상들이 돌아가는 세상으로, 망자(亡者)의 세계, 저승세계를 의미한다. 프라비는 신들이 사는 공간, 세상으로 신성한 세계이다. 프라비는 신들이 사는 장소이며 가장 높은 곳이다. 야비에 살고있는 인간들을 지켜보면서 정의와 질서를 확립하고, 시비(是非)를 판단하고, 규칙과 규범을 만들어 심판하고 다스리는 곳이 바로 프라비다. 프라비는 신들만이 사는 신성한 공간으로 인간은 프라비에 범접할 수 없

으며 야비와 나비 사이의 통행만 가능하다.(Капица 1999, pp. 49-51).

북유럽신화에서도 하늘과 땅, 그리고 지하세계를 연결해주는 세계수가 등장한다. 세상을 창조한 후 오딘이 심었다고 전해지는데, 거창하게 자란 나무 뿌리는 세 갈래로 갈라져 하나는 신들의 세계인 아스가르트, 지하세계, 안개의 나라 니플헤임으로, 마지막 한 뿌리는 인간의 세계인 미드가르트로 뻗어 있다고 한다. 각각의 뿌리 끝에는 샘이 하나씩 있는데, 요툰헤임의 미미르의 샘(지혜의 샘), 니플헤임의 흐베르겔미르(질투의 샘), 그리고 아스가르트의 우르드의 샘(생명의 샘)이다. 니드호그는 '중오에 차 공격하는 자'란 뜻으로 니플헤임의 흐베르겔미르 근처에 살며 죽은 자와 위그드라실의 자라는 뿌리를 갉아 먹는다. 니드호그는 용(dragon)으로, 세계의 종말 라그나로크가 도래하면 죽은 자를 싣고 하늘을 날아다닐 것이라 한다.(Тревер, 1933, Watkins 2001)

페룬은 스칸디나비아의 신 토르(Thor)와 아리안(the Aryan)의 신 파랴나(Parjanja)와 같은 건장한 전사로 비유된다.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자신이 섬기는 신의 우상 앞에 무기를 내려놓는 의식 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18세기 러시아에서 발견된 검의 섬세한 문양을 통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의식이 행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Phillips & Kerrigan 1999, pp. 42-43) 이러한 의식은 슬라브족뿐만이 아니라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전사들도 행하던 의식이며 문화인 것이다.

IV. 결론

테오님, 즉 신의 이름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함의하기 때문에 어원에 따른 이름이 반영하는 의미, 그 사회적 체계와 문화의 반영, 그 집단이나 사회 속에서의 존재와 영향력 등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정보를 제공한다. 테오님 연구는 특정 지역이나 시대에 구전되고 숭배되던 관습이나 의식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된 다양한 문맥 속에서의 정보를 제공해준다. 특히, 블라디미르 대공이 기독교 수용 이전에 섬겼던 동슬라브 7대 주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정신적, 문화적 근간을 형성하는 신들이다.

혹독한 날씨와 거친 자연환경과 맞싸우며 생사의 갈림길에서 근근히 버티며 사냥이나 채집활동을 통해 생존하거나, 유목생활을 통해 이동하며 목축활동을 하였고, 이후 태양과 물에 의존하며 농경활동을 해야 했던 원시 부족들

에게는 자연은 숭엄하고 경이로운 존재임과 동시에 숭배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잔혹하고 매정한 위협적 존재였을 것이다. 이러한 생활과 문화적 환경은 이들이 숭배하는 신들의 이름인 테오님과 관련된 담론 속에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편적인 신들의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슬라브신화가 아닌 기타 다른 나라의 신화들과의 연관성, 언어적 특성을 밝히는 데에 테오님은 매우 유용한 도구가 아닐 수 없다. 테오님은 각각의 신의 특성 및 역할과 관련되어 명명되어졌으며,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대공의 슬라브 판테온에 세워진 신들의 테오님을 분석함으로써, 각 신들의 기원과 문화적 연관성, 타문화와의 인과관계 등을 분석할 수 있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와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1) 폴란드어: Niemcy ‘Germany’, 러시아어: Nemtsy ‘Germans’
- 2) www.gramota.ru 검색어: ЧУДЬ, ЧУДЬ, -и; ж. собир. В древнерусских летописях: название эстов и родственных им угро-финских племён, проживавших на восточном берегу Онежского озера, по берегам рек Онега, Северная Двина. <Чудской, -ая, -ое. Ч-ие племена.
- 3) 켈트족의 하나인 Volcae에서 유래
- 4) Online Etymology Dictionary, 검색어: jupiter, <https://www.etymonline.com/search?q=jupiter> (검색일: 2023. 05.02.) PIE *ph2ter- “father”는 ‘아버지’란 뜻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보호를 행사하는 사람, 즉 가장’의 의미를 갖는다. 다른 나라에서는, Sanskrit pitar-, Latin pater-, Old Persian pita, Old Irish athir “father” 형태로 나타난다.
- 5) 발트신화에서 리투아니아의 신 Dievas는 태초의 최고 신으로 Perkinas와 함께 가장 중요한 신으로 여겨진다. ‘하늘, 번영, 부와 명예, 다른 신들의 지배 신, 우주의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Dievas는 PIE 하늘 신, 최고의 신, *Dyeus-<*deiwo-에서 유래. 기독교 수용 이후, 크리스티교의 신의 존재로 여겨짐.
- 6) 한글 해석은 저자 본인의 해석임을 밝힙니다.
- 7) Antae, also spelled Antes, federation of eastern Slavic nomadic tribes known by the 3rd century AD, dwelling in southern Russia between the Dnieper and Dniester rivers. A powerful people with highly developed agriculture, handicrafts, and ironwork, the Antae fought the Goths, who were fleeing westward from the Huns in the 4th century. In the early 6th century they joined in Slavic raids against the Byzantine Empire but were nearly annihilated by the Avars, who passed through their lands c. 560. Information about the Antae was recorded by the Gothic historian Jordanes (6th century) and Byzantine historians, including Procopius of Caesarea (6th century). (검색어: Antae, <https://www.britannica.com/topic/Antae>, 검색일: 2023.05.14.)
- 8) Alani, also called Alans, an ancient nomadic pastoral people who occupied the Steppe region

northeast of the Black Sea. The Alani were first mentioned in Roman literature in the 1st century CE and were described later as a warlike people who specialized in horse breeding. They frequently raided the Parthian empire and the Caucasian provinces of the Roman Empire. About 370 CE, however, they were overwhelmed by the Huns, and many fled westward, crossing into Gaul with the Vandals and Suebi (406). Although some of the Alani settled near Orléans and Valence, most went to North Africa with the Vandals, causing the official title of the Vandal kings in Africa to be “kings of the Vandals and the Alani.” The Alani who remained under the rule of the Huns are said to be ancestors of the modern Ossetes of the Caucasus. (검색어: Alani, <https://www.britannica.com/topic/Alani>, 검색일: 2023.05.14.)

- 9) 리투아니아의 신화에 따르면,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천둥-번개의 신인 Perkunas가 살고 있는데, 그 곳은 미끄러운 급경사로 되어 있어 악한 기운들이 오르지 못한다. 이와는 달리, Dausos는 ‘달’로 여겨지는 죽은 영혼들의 신비한 왕국으로 여겨지며 Dievas가 다스린다. 이곳은 천국도 천당도 아닌 단순히 폐륜이 살고있는 미끄러운 경사가 있는 하늘 밖의 세상이다. 하늘로부터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사자(死者)들은 동물과 같은 강하고 날카로운 발톱이 필요하다고 한다.
- 10) 한글해석은 저자 본인의 해석임을 밝힙니다.
- 11) 호레즘, 호라즘(Khwarazm/Chorasnia) - 아무다리야(Amu Darya) 강의 델타지역 근처의 오아시스 지역. 북쪽으로는 아랄해, 동쪽으로는 키질쿰(Kyzylkum) 사막, 남쪽으로는 카라쿰(Karakum) 사막, 서쪽으로는 우스티우르트(Ustyurt) 평원에 맞닿아 있는 지역이다. 이란의 호레즘 문명을 형성한 지역으로 현재는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 걸쳐 있는 지역이다.
- 12) 이시타르(Ishtar)는 부활절을 뜻하는 ‘Easter’가 파생된 어원으로 알려져 있다.
- 13) Paraskeva는 그리스어(Greek: παρασκευή paraskeue)로 안식일(the Sabbath)을 준비하는 날, 준비의 의미를 지닌다.
- 14) Lusatia is a historical region in Central Europe, split between Germany and Poland. Lusatia stretches from the Bóbr and Kwis rivers in the east to the Pulsnitz and Black Elster rivers in the west, and is located within the German states of Saxony and Brandenburg as well as in the Polish voivodeships of Lower Silesia and Lubusz. Lusatia's central rivers are the Spree and the Lusatian Neisse, which constitutes the border between Germany and Poland since 1945 (Oder - Neisse line). <<https://en.wikipedia.org/wiki/Lusatia>>
- 15) 오세티아 공화국은 남오세티아 공화국과 북오세티아 공화국으로 나누어져 있다. 공식 명칭은 각각 the Republic of South Ossetia - the State of Alania, the Republic of North Ossetia - Alania 이다.
- 16) Krishna is a major deity in Hinduism. He is worshipped as the eighth avatar of Vishnu and also as the Supreme God in his own right. He is the god of protection, compassion, tenderness, and love: and is one of the most popular and widely revered among Hinduism divinities. (<https://en.wikipedia.org/wiki/Krishna>)
- 17) Saxo Grammaticus(1150-1220, also known as Saxo cognomine Longus)a Danish historian, theologian and author. He is thought to have been a clerk or secretary to Absalon, Archbishop of Lund, the main advisor to Valdemar I of Denmark. He is the author of the Gesta Danorum, the first full history of Denmark, from which the legend of Amleth would come to inspire the story of Hamlet by Shakespeare.

References

- Adams, D. Q. (1997). *Encyclopedia of Indo-European Culture*: Taylor & Francis.
- Borissoff, C. L. (2014). Non-Iranian Origin of the Eastern-Slavonic God Xürsü/Xors. *Studia Mythologica Slavica*, 17, 9-36.
- Dixon-Kennedy, M. (1998). *Encyclopedia of Russian & Slavic myth and legend* : ABC-CLIO.
- Green, G. (1995) *Slavic Pagan World*.
- Ivanov, V.V., & Toporov, V.N. (1987). Baltijskaja Mifologija. Mify narodov mira, 1, 153-159.
- Ivanits, L. J. (2015). *Russian folk belief*: Routledge.
- Kalik, J. & Uchitel, A. (2018). *Slavic gods and heroes* : Routledge.
- Marija, G. (1973). Perkūnas/Perun. The Thunder God of the Balts and the Slavs. *The Journal of Indo-European Studies*, 1(4), 467-478.
- Phillips, C., & Kerrigan, M. (1999). Forests of the vampire: Slavic myth: Time Life Education.
- Procopius, The Gothic War, English translation by H. B. Dewing, London, Vol. 4, 1954, 7.14.22.
- The Russian Primary Chronicle, Laurentian Text, translated and edited by Samuel Hazzard Cross and Olgerd P. Sherbowitz-Wetzor, Cambridge, MA, 1953, p. 93.
- Watkins, C. (1969). *Indo-European and the Indo-Europeans*.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1496-1550.
- Watkins, C. (1995). *How to kill a dragon: aspects of Indo-European poe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Watkins, C. (2000).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Indo-European roots*: Houghton Mifflin Harcourt.
- Бутков, П. (1821). Нечто к Слову о полку Игореве. *Вестник Европы* 21, 58-59. Butkov, P. (1821). Necho k Slovu polku Ioreve. Vestnik Evropy (21), 58-59.
- Гаврилов, Д. А., & Наговицын, А. Е. (2002). Боги славян. Язычество.

- Традиция: Рефл-бук. Gavrilov, D.A. & Nagovicyn, A.E. (2002). Bogi slavian. Jazychestvo. Traditsija : Refk-buk.
- Иванов, В. В. & Топоров, В. Н. (1995). Семаргл. In Славянская мифология. Ivanov, V.V. & Toporov, V.N. (1995). Semargl. In Slavjanskaja mifologia.
- Капица, Ф. (1999). *Славянская мифология: справочник*. М.: Мегатрон.
- Капitsa, F. (1999). *Slavjanskaja mifologija: spravocnik*. М. : Megatron.
- Кривошеев, Ю. В. (1988). *Религия восточных славян накануне крещения Руси*. Krivosheev, JU. V. (1988). *Religija vostochnyx slavian nakanune kreschenija Rusi*.
- Крючкова, Е., & Крючкова, О. (2019). *Славянские боги, духи, герои, богатыри. Иллюстрированный путеводитель по мифам и преданиям наших предков*. Москва: Эксмо. Krjuchkova, E. & Krjuchkova, O. (2019). *Slavjanskije bogi, duxi, geroi, bogatyri, Illjustrirovannyj putevoditelj po mifam I predanijam nashix predkov*. Moskva : Eksmo.
- Мелетинский, Е. (1990). *Миф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Гл. ред. ЕМ Мелетинский. М.: Сов. энциклопедия. Meletinskij, E. (1990). *Mifologicheskij slovarj*/Gl. red. EM Meletinskij. Moskva: Sov. entsiklopedija.
- Обнорский, С. П. (1929). Прилагательное "хороший" и его производные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ранион. научно-исследов. инст. сравн. ист. лит. и языков Запада и Востока. Obnorskiy, S.P. (1929). Prilagateljnoe "horoshij" i ego proizvodnyje v russkom jazyke : ranion. nauchno-issledov. inst. sravn. ist. lit. i jazykov Zapada i Vostoka.
- Пре́йс, Пётр (1841). Донесение. Г. министру народного просвещения из Праги от 26 декабря 1840 года. *Журналъ Министерства н ароднаго просвѣщенія*. Petersburg: Imperatorskaja Akademia Nauk. XXIX: 31 - 52. Prejs, Piotr (1841). Donesenije. G. ministru narodnogo prosveschenija iz Pragi ot 26 dekabrja 1840 goda. Zhurnalъ Ministerstva narodnago prosveschenija. Petersburg: Imperatorskaja Akademia Nauk. XXIX: 31-52.

- Рыбаков, Б. А. (1981). *Язычество древних славян*. Москва: Наука.
 Rybakov, B. A. (1981). *Jazychestvo drevnix slavjan*. Moskva: Nauka.
- Рыбаков, Б. А. (1987). *Язычество древних Руси*. Москва: Наука.
 Rybakov, B. A. (1987). *Jazychestvo drevnix Rusi*. Moskva: Nauka.
- Толстая, С. М. (2014). *Славянская мифология: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2-е ed.) Москва :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Tolstaja, S. M. (2014). *Slavjanskaja mifologija: entsiklopedicheskij slovarj* (2-е ed.). Moskva : Mezhdunarodnyje otnoshenija.
- Тревер, К. (1933). "Собака-птица: Сэнмурв и Паскудж". Из истории до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их формаций.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к сорокапятилетию науч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 Я. Марра (in Russian). S.N. Bykovsky, F.V. Kiparisov, A.G. Prigogine, M.A. Raphael. (editors). Moscow. pp. 293 - 329. Trever. K. (1933). "Sobaka-ptica: Semurv i Paskudzh". Iz istorii dokapitalisticheskix formatsij. Sbornik statej k sorokapjatiletiju nauchnoi dejatel'nosti N. JA. Mappa (in Russian).
- 박미령, 김형섭 & 김세일 (2021). *동슬라브 신화의 이해*. 다해. Park, M.R., Kim, H.S. & Kim, S.I. (2021) *Dongseullabeu Sinhwaui Ihae*. Dahae.
- 최하영 (2017). 우크라이나 기독교 역사를 통한 선교 전략. *복음과 선교*, 39(3), 231-256. Choi, H.Y. (2017) *Ukeuraina gidokgyo yeoksareul tonghan seongyo jeollyak*. *Bogeumgwa Seongyo*, 39(3), 231-256.
- 이덕형. (2001). *천년의 울림*.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Lee, D.H. (2001). *Cheonnyeonui Ullim*. Seoul: Seonggyungwandaehakgyo Chulpanbu
- 이온스, 베로니카. (2004). *인도 신화*. (임웅, 역) 범우사 (원전출판: 1983) Ions, V. (2004) *Indo Sinhwa*. (Im Ung, yeok) Beomusa. (Wonjeonchulpan: 1983)
- 이정희. (1986). *동유렵사*. 서울: 대한교과서. Lee, J.H. (1986). *Dongyureopsa*. Seoul: Daehangyogwaseo.

논문심사일정

투고일자 : 2023. 8. 30.

심사일자 : 2023. 9. 3. ~ 2023. 9. 13.

게재확정일자 : 2023. 9. 13.

